

데스크 시각

‘좋아서 하는 밴드’



김미은 문화1부장

한때 인디 그룹 중에 ‘좋아서 하는 밴드’를 좋아했다. 지금까지 ‘버스킹(busking·길거리 연주와 노래)’이 흔치 않았던 2009년 즈음, 한 영화 축제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4인조 밴드(지금은 3인조)였다. 화려한 메인 행사가 끝나고 집에 가려 주차장에 들렀는데 어디선가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렸다. 기타와 아코디언, 아프리카 타악기 켈레 반주로 풋풋한 노래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이사 올 사람에게 나는 말해 주고 싶었지/ 고장 난 듯한 골드스타 세탁기가 아직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무더운 여름날 저 평상을 만드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평상 위에서 별을 보며 먹는 고기가 참 얼마나 맛있는지”(‘옥탑방에서’)

우리처럼 오다가다 현장을 ‘발견’한 사람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공연을 보며 함께 웃고 환호했다. 초대받지 않은 축제 현장을 찾다니는 ‘좋아서 하는 밴드’의 전국 투어 스토리는 ‘좋아서 만든 영화’(2009)로도 제작됐다. ‘좋아서’ 일을 도모하는 이들은 또 있다. 취재 중 만난 ‘생태 읽기 모임 꾸꾸꾸’(blog.naver.com/ethe\_r)다. 세 명의 청년은 정기적으로 소박한 ‘꾸꾸꾸꾸 생명평화 영화제’를 열고 있다. 장소를 섭외하고, 영화를 선정하고, 간단한 먹을거리도 준비한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좋아서 하니 즐겁다.

좋아서 여는 영화제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함께 보는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여름·가을’이다. 음식 영화에 걸맞게 발에서 직접 캐 온 감자, 엄마가 만든 매실에이드, 포도주와 떡도 준비했다. 관람료는 없다. 개인 컵을 준비하고 음식물 준비를 위해 은별(010-4635-8524) 씨에게 전화 한 통 하면 끝이다.

얼마 전 취재한 파리·K-VOX 페스티벌-유리피언 아마추어 판소리·민요 경

연’ 현장은 매우 흥미로웠다. ‘아이고, 아버지’ 하는 심청가 한 대목을 라디오에서 듣고 마음을 빼앗겨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벨기에 남성, 춘향이와 이 도령의 애절한 이별가 대목을 절절하게 표현해 내는 영국 여성의 등장에 무척 놀랐다.

판소리 경연을 비롯해 컨퍼런스, 공연, 강습 등으로 구성된 페스티벌을 꾸린 이는 한국 판소리에 폭 빠진 프랑스인 에르베 페조디에와 부인 한유미 씨다. 공연 기획부터 출연자 이동까지 온갖 일을 다 하는 두 사람은 정부 지원 없이 행사를 꾸리는 진정한 ‘민간 문화사절’이었다.

속된 말로 ‘밥이 나오는 것도,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 힘든 일을 왜 저리 즐겁게 하는 걸까. 며칠 동안 지켜보다 질문을 던졌다. 답은 이거였다. “판소리가, 한국 음악과 공연이 너무 좋으니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당시 ‘좋아서 하는 밴드’에 ‘꽃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 게 생각해 본다. 일상에서 포착한 가사, 편안한 멜로디와 음색에 빠져서였을까? 즐기며 노래하는 이들이 무척 행복해 보여서였을까? 물론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였을 거다.

한편으로 혹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좋아서 하는 밴드’라는 이름 자

체가 부러웠던 건 아니었을까 자문해 본다. 딱딱한 삶에 묶인 우리는 ‘좋아서’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싫어도,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고, 더욱 슬픈 건 조직 논리에 따라 가끔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실행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기도 하니까.

‘밥벌이’가 힘들어도...

최근 기사 관련 메일을 보낸 84세 독자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 “나이가 많습니니다. 그래도 호기심은 어린아이입니다.” 노신사는 가고 싶은 커피숍 이름을 수첩에 적어 두고, 젊었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역사 관련 자료를 챙기는 게 즐겁다고 했다. 멋진 인생이더군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생활을 위해 ‘밥벌이’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삶이다. 삶에 쫓겨 한때 좋아했던 일을 까맣게 잊고, 때론 좋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감흥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루하루가 힘들더라도 이제 좋아했던 일을 다시 찾아내고, 좋아서 하는 일 하나 즐만들고, 때론 그 일을 함께 나누는 건 어떨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더라? /mekim@kwangju.co.kr

은편칼럼

대한민국이 세습군주제인가?



임명애 약사

이 들어 한심하고 부끄럽다.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되어 상호 견제를 통해 건전한 통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3권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회의원은 각각의 의원 자체가 헌법기관의 역할을 하며 그들 중 국회의장을 선출하여 입법부 수장을 맡는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의 공정성을 지킨다. 잠으로 그럴 듯 하고 OECD국가의 일원으로 부끄럽지 않는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부끄럽고 한심스러울까? 우리가 외신을 통해 정치후진국의 행태에 혀를 끌끌 차듯이 외국인들은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뉴스를 보고 실소를 머금고 있지 않을까? 박 대통령은 3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동시에 국회법을 통과시킨 같은 당의 유승민대표에게 “내년에 국회의원 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독설을 퍼부었다. 3권 분립을 주장하는 대통령이 동시에 3권 분립을 흔들었다. 이번 사건 자체만으로 우리나라는 전혀 3권 분립이 되어 있지 못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대통령만 국민이 선출할 뿐, 나머지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한다. 국회의원도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지형도에서는 국민이 선출하는 모양새만 갖추었을 뿐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를 통해 사실상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경상도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력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여야합의를 통해 제출한 법안에 대통령의 불쾌하다는 한마디에 풍비박산이 나버렸다. 국회의원 배지를 두 번 다시 탈지 못해도 소신과 원칙을 지키려는 기개는 그 누구에게서도 찾을 수 없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라는 용버어친가를 통해 대통령에게 잘보여야 한다.

나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못처서 유승민의 사퇴를 막아내고 재의를 통해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상위법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거나 왜곡시키는 행정부의 시정령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법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국회가 3권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신호탄을 쏘아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정치철학과 소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 치열한 논리적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 차례의 위기관리능력을 통해 이미 검증이 끝난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달려만 보고 있어야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불행이다. 야당도 내홍이 심하다. 과거 김대중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극화 다양성이 필요한 시대다. 어느 한 명의 권력자에 의해 국가나 정당이 휘둘린다면 이러한 후진적 행태는 영원히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 나라의 정치수준의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라 한다. 간도 쓸개도 심지어 심장 치인은 아닌 후보들, 정치철학은 없고 권력자의 총애만 있는 꼭두각시와 같은 후보들을 무관심하게 선출하고 마는 국민 의식의 개혁만이 가장 강력한 처방일 것이다. 내 세습으로 월급을 주며 나를 위해 일할 직원을 뽑는다면 절대 이런 지원자를 뽑지 않을 테니까.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2002년 월드컵, 그리고 2015년 광주U 대회



정진철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

대한민국을 있게 하였다. 또한 이때의 젊음과 열정의 표출은 거침없는 하이킥과 도 같은 광주의 기상을 드높여야 할 것이다. 149개국의 1만 4000여명의 손님이 우리 광주를 찾았다. 이들에게 우리는 ‘오! 대한민국’의 함성과 같은 뜨거운 열정과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강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종목이 열리는 경기장은 물론이고 시내 곳곳에서 축제의 열정이 넘칠 수 있어야 하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주는 이번 U대회를 통해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무질서와 불친절이 난무한 서울시를 일순간에 바꿀 수 있었고, 서울을 선진화된 국제민도시로 승화시켰다. 광주의 빛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빛날 수 있어야 하고, 광주시민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관광객 그리고 국내외 방문객들이 거리 곳곳에서 문화와 젊음의 한마당에 빠져들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대회가 끝나는 날

향연을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젊음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미증של 삼아 새로운 광주의 기상을 드높여야 할 것이다.

광주는 모든 사람들이 광주의 넉넉함과 문화 정단과 맛의 향연에 빠져들도록 해야 할 것이고, 스포츠의 열정을 역동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 그동안의 무기력과 나약함이 있었다면 한 순간에 날려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대학생들이여! 그대들은 U대회의 주인이 되어 전 세계의 손님과 어울려야 한다. 수많은 국가의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井蛙不可以語海(정와불가어해), ‘장자편’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마음에 담아야 하리라.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말해줄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세계의 대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세상의 바다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까지 성숙된 시민정신을 잃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광주를 찾은 모든 사람들이 광주의 넉넉함과 문화 정단과 맛의 향연에 빠져들도록 해야 할 것이고, 스포츠의 열정을 역동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 그동안의 무기력과 나약함이 있었다면 한 순간에 날려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광주의 대학생들이여! 그대들은 U대회의 주인이 되어 전 세계의 손님과 어울려야 한다. 수많은 국가의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井蛙不可以語海(정와불가어해), ‘장자편’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마음에 담아야 하리라.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는 바다를 말해줄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세계의 대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세상의 바다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U대회 선수단 팸투어 버스 즉각 증편해야

요즘 광주 시내에선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 선수단 신분증을 패용한 벽안의 외국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부 선수들은 광주 인근의 유적지와 명소들을 둘러보는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에 나서기도 한다. 팸투어는 U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기간 동안 광주·전남을 알리기 위해 외국 선수단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견학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팸투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버스 증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하루 45인승 버스 6대로 10회 운영되다 보니 금방 매진되는 일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처럼 몰려드는 수요에 비해 팸투어 버스가 부족하다 보니 지난 2일부터 6일 현재까지 팸투어에 참여한 선수는 고작 632명(34개국)에 불과했다.

팸투어에 나서려 했던 선수들이 계획을 포기하고 선수촌에 머무르는 일도 많다.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가 남

도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외국 선수들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의 멋과 맛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얘기가.

하지만 시와 조직위원회는 예산과 통역요원 부족 등을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전 세계에서 1만 3000여 명의 선수가 광주에 오는데 하루 450명으로 제한하는 팸투어를 기획했을까. 물론 예산이 틀릴 수는 있다. 문제는 변화된 현실에 맞춰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데 있다. 수요가 늘어났다면 돈타령만 할 게 아니라 어디에서는 예산을 끌어 들여 증편을 해야 마땅하다. 한번 결정되면 좀처럼 고치지 않는 공무원들의 경직된 사고를 여기에서도 확인하게 된다.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U대회는 우리의 멋과 문화 그리고 남도의 자연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다. 외국 선수들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버스를 증편해야 할 것이다.

문화수도 조성 약속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직제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혹시나’는 없었고 결과는 ‘역시나’였다. 지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다. 광주 지역 문화시민사회단체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직제안을 보면 전당장의 직급만 한 단계 올랐을 뿐 문화전당 운영 인력 구성은 50명 그대로였다. 문화전당 개관과 향후 운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문화전당 직제와 정원은 ‘1전당 4과, 정원 50명’.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상했던 ‘1전당 6과, 정원 112명’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다. 다만 전당장의 직급만 당초 사무관급인 나급에서 서기관급 이상인 전문임기제 기급으로 상향했다. “문화전당 직제안의 국무회의 통과 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지역 12개 시민사회문화단체가 내놓은 긴급 논평이

다. 문화전당장 직위를 수정한 것 빼고 는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수도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화부 직제 개정(안)은 사실상 특별법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대폭 축소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소속 일개 과(課) 단위에서 2023년까지 광주를 7대 문화권으로 나눠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문화전당과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참으로 기대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처절한 결과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하지만 애초 정부를 설득시켜 떠안고 가지 못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도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無等鼓

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에 국제금융을 신청한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국제금융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부는 기업들의 연쇄 부도로 국가 채무가 1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외환 보유액은 39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고백했다.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으면 국가부도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12월 3일 IMF로부터 195억 달러의 지원받기로 협약을 맺자 곧바로 국제금융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TV화면에 매일 등장하는 미셸 칸드쉬 IMF총재는 ‘저승사자’였다. 그가 제시한 가혹한 국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실업자 수가 급증하며 실업률이 10%를 넘어섰다. IMF 국제금융을 졸업할 수 있었다. 한국이 국제금융의 모범국이라면 그리스는 끝짓덩어리다. 그리스가 채권

단의 국제금융안을 거부하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채권단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요구한 긴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채권단의 주축인 유럽연합이 과도한 긴축을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계를 2500년 전으로 돌리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때는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아테네는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르면서 지

중해의 조그만 나라인 밀로 섬에 그리스 국가들의 연합체인 델로스동맹에 들어올

것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멸망시켜 버렸다.

그리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고를 거덜 냈다. 빚을 내 흥청망청 쓴 자신들이 길거리에서 쏟아졌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한데 모은 것은 ‘금모으기 운동’이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팔아 달러를 샀다. 이런 노력으로 한국은 3년 만에 IMF 국제금융을 졸업할 수 있었다. 한국이 국제금융의 모범국이라면 그리스는 끝짓덩어리다. 그리스가 채권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